

산스크리트 문법

인도문화의 그릇이자 대승불교의 수레바퀴

교증본찰봉선사산스크리트편집실

'봉선사산스크리트편집실'은
대한불교조계종제25교구본사교종본찰봉선사에마련된
산스크리트어및빠알리어편집기구입니다.
봉선사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편집실이메일 : sanskritsil@hotmail.com

새롭고도 묵은 언어 '산스크리트'

아리안족이 오랜 유목생활을 마감하고 인도대륙에 자리를 잡은 뒤 자신들의 성전 <베다>를 중심으로 현지의 토착문화를 흡수하여 화려한 인도문화를 꽃피우게 되었으니, 그 문화의 중심에는 인도의 고대 언어 '산스크리트'가 있다. 佛家에서 梵語라 일컫는 산스크리트는 이미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시기를 조금 넘긴 기원전에 생활어로서의 생을 마감하고 암송에 의한 성전의 전수에 사용된 文章語로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기원전 5세기경 빠니니에 의해 그 문법이 집대성되고 연이어 기원을 전후하여 몇몇 문법가들에 의해 빠니니문법서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한 文章語로 다듬어져 자리를 잡음으로써 다양하고도 방대한 인도문화를 실어나르는 그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은 물론 인도 주요언어들의 모태로서 2천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동안 그 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심지어 현대에 저술되는 각 분야의 주요서적들도 산스크리트로 번역되어 보관되는 점 등을 보건대 단순히 '死藏된 인도의 고대 언어'로 여길 것은 분명 아니다.

다양한 인도문화의 연못에서 가장 영롱한 봉우리로 꽃을 피운 불교 또한 남방대장경은 넓은 의미의 범어에 속하는 빠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저술되었다가 후일 한문대장경의 저본이 되었던 북방대장경은 빠알리어 성격을 겸비한 혼성산스크리트로 기록되어 있다. 아쉽게도 북방대장경은 남방의 그것과 달리 한문으로 번역된 이후 거의 산실되고 그 일부만이 전해져 대장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부 주요 경전들과 논서들로 이루어진 범어불전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종단의 관점에서든 한역대장경의 한글화 작업을 마무리한 현재의 시점에서 더 나아가 경전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범어불전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산스크리트는 그저 지나간 고전의 추억을 되새기는 용도로서가 아니라 佛音을 바탕으로 옛것을 온전히 한 뒤 미래의 새로운 것을 올바르게 알고자 하는 지금에 유용히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국내에선 불교계를 위주로 약 20년 전부터 범어, 즉 산스크리트와 빠알리어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그 결실이 있어왔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지난 94년 빠알리어 문법서와 사전이 출간되었고, 연이어 성전협회의 노력과 본 교육원의 후원으로 범어문법서가 98년 출간되었으며, 근년에는 초기불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종단의 스님들과 기타 재가 법사들에 의해 빠알리어로 된 남방경전과 주요 논서들이 번역되었고, 몇 년 전에는 일본불교계에서 오랜 숙원사업을 통해 편찬했던 <梵和大辭典>이 한글로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

이즈음에 불교계뿐만 아니라 인도철학계를 위시한 철학계는 물론 심지어 한글학계에 있어서까지 가장 요긴한 바람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범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각 분

야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적 도구로서 산스끄리뜨가 큰 어려움 없이 습득될 수 있고 또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특히 산스끄리뜨에 대한 국내의 여러 여건은 굳이 일본에 견주어보지 않더라도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산스끄리뜨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작지만 새로운 시도가 종단의 한 스님에 의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접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다.

남양주 봉선사 玄津스님은 출가이전에 경북대학교에서 중국어과를 졸업하였고, <중국정사 조선열국전>과 <규원사화>를 번역하여 출간한 바 있다. 봉선사로 출가하여 종단의 대강백이자 동국역경원장이신 월운큰스님을 은사로 불도수행에 전념하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전통강원인 승가대학의 교재 <치문경훈>을 번역출간하면서 교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스님은 그 후 2003년 인도로 건너가 티벳어와 빠알리어 및 산스끄리뜨를 수학해 왔는데, 마침내 산스끄리뜨를 공부할 수 있는 1차 교재를 編譯하여 이렇게 소개함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번에 '산스끄리뜨 제1차 교재'라는 명목으로 편역되어 출간되는 것은 세계최초의 우화집 <뽀짜뽀뜨라>와 인도철학의 원천 <우빠니샤드> 및 그에 수반된 문법서인 <산스끄리뜨 문법서> 등 3종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얼추 살펴건대, 단순한 번역서에 더하여 산스끄리뜨를 어학으로서 학습할 때도 활용될 수 있게 편집하고 다듬은 까닭에 당장의 필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산스끄리뜨를 접해본 이들에겐 뽀짜뽀뜨라가 기초어학의 寶庫와 같이 취급되는 책이며, 우빠니샤드가 베다범어와 고전범어를 잇는 주요한 어학서적임과 동시에 불교를 포함한 모든 인도철학의 밑거름이 되는 철학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우빠니샤드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이전에 당시 산재한 사상들을 두루 섭렵하실 때 직접 들으셨을 많은 초기 인도철학의 내용들이 오롯이 담겨있는 까닭에 불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굳이 배척할 내용이 아님은 물론, 부처님께서 겪으시고 고뇌하셨을 당시의 사상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제25교구 본사 봉선사는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글대장경 역경의 대불사를 처음 일으킨 운허 대강백께서 주석하셨던 곳이며, 선대의 불사를 이어받아 종단의 동국역경원에서 한글역경을 완료하신 당대의 대강백 월운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역경교학도량인 봉선사에서 또 다시 한 후학에 의해 작은 불씨가 이렇게 지펴지고 있으니, 원하건대 이 불씨가 풍성한 숲으로 된 좋은 반연을 만나 타오르는 불길이 됨으로써 산스끄리뜨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기 2555(2011)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베다문언과 문법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욕구와 그에 따른 정신적인 활동은 인간을 단순한 동물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한 욕구는 나아가 그 심도가 깊어지며 마치 물줄기의 근원을 찾아 깊은 산속을 누비듯이 진리 자체 뿐만 아니라 진리의 근원과 아울러 결국엔 어떤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의 근원이 무엇인지까지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Tattvajñāna('그' 상태의 지식)', 즉 궁극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앎'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비교적 간단한 이치나 도리 등은 책이라는 기록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체득할 수 있으나, 명상을 통한 깊은 사고의 결과물로 도출된 궁극적 진리에 대한 지식은 제아무리 뛰어난 문자를 동원하고 게다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술된다 하더라도 문자화된 책만을 통해서 그 전체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는 전통적으로 스승의 처소에 제자가 입문하여 함께 생활하며 항상 스승의 곁에 다가앉아 스승의 음성을 통해 직접 가르침을 익히는 'upa(近)ni(接)sat(坐)'이란 형식이 지켜지고 있다. 베다에 연원을 두고 인간이 행한 정신적인 사고활동의 찬란한 결과물인 '우빠니샤드'는 그렇게 집성된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전수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제목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흔히 베다는 뿌리에 비유되고, 그에 따른 제례서(祭禮書)와 삼림서(森林書)인 브라흐마나와 아란야까는 기둥에, 그리고 우빠니샤드는 만개한 꽃에 비유된다. 그러나 사상적이며 철학적인 내용을 머금고 있는 정도에 따라 비유한다면, 베다는 흙속에 있는 물과 영양분이요 브라흐마나와 아란야까는 물과 영양분을 품고 있는 흙과 같은 것이며, 우빠니샤드가 곧 '철학적인 사상'이라 불릴 수 있는 온전한 한 그루의 나무로서, 흙속에 뿌리를 두고 기둥을 뺏어올려 수많은 가지와 아울러 가지마다 만개한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있는 것이란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우빠니샤드에는 베다의 일원론(一元論)만이 주장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주장'이란 표현이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필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일원론이란 하나의 틀에 국한되지 않고 그에 반하는 이원론(二元論)에 대한 서술은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사고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사상들이 자유롭게 그렇지만 학습과 반복 및 명상이라는 수행을 통해 엄밀히 정제된 채 표현되어 있으니,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나 심지어 베다의 아류로만 여기고 말 정도의 사상들이 아닌, 우빠니샤드 그 자체의 분명한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베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보조학문으로 여섯 가지가 거론되는데, 음성학과 제례학 및 어원학 음률학 천문학 그리고 문법학이 그것이다. 언어란 그것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민족에 의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되다, 다양한 목적에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외부인에 의해 해당 언어의 문법에 대한 정리가 처음 시도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산스끄리뜨'라는 언어의 경우 이미 기원전 15세기 이전에 정착된 베다의 전승에 사용된 언어로서 자리잡고 있었는데, 베다에 근거한 아란야까와 우빠니샤드 등 철학류의 내용들을 구전을 통해 실어나르며 확실한 모습을 갖추게 된 이후 일종의 文章語로서 그 정체성이 확립됨과 동시에 기원전 5세기를 지나며 생활어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한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기원전 5세기경 문법가인 빠니니에 의해 '베디산스끄리뜨'가 일대 정리되어 일종의 '고전산스끄리뜨'로 확립된 것에 기인한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스끄리뜨어는 사용자 자신들의 문법가에 의해 매우 이른 시기에 문법적 내용이 확립된 셈인데, 더욱 특이한 것은 그 당시 제정된 세밀한 문법규칙 하나하나가 거의 2천년 동안 모든 산스끄리뜨 저술에 엄정하게 적용되었음은 물론 오늘날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그 내용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건너와 몇 해에 걸쳐 '우빠니샤드'를 내게서 읽은 한 한국의 學僧이 18책으로 된 그것을 일람한 후, 내가 저술해 두었던 문법서로 잠시 문법의 기초를 익히더니 이내 빠니니문법서의 축약주석서인 <라구까우무디>를 나와 함께 읽는데 다시 한 해를 할애하였다. 스님으로서 불교적 사상의 연원인 인도사상을 배우려고 시작된 탐구가 어느 곁에 해당 언어의 습득을 거쳐 그 근원인 문법에 대한 일괄까지 시도한 셈이다. 애초에 함께 읽던 문법서를 바탕으로 라구까우무디 및 여타 문법서들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법서는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기초문법서를 산스끄리뜨어 교재형식으로 정리된 두 권의 책인 <우빠니샤드> 및 <빠짜판뜨라>와 함께 묶어 산스끄리뜨어를 한국에 소개하면서 초학자들이 문법학습용으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소개한다니 더 없이 기쁜 마음이다.

고전에 대한 관심의 부침(浮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미 文章語로서 애초에 학술적인 언어로 굳어버린 산스끄리뜨어에 대한 관심은 본국에서조차 좀처럼 다시 일으키기 쉽지 않다. 중국을 통해 전해 받은 불교에서 커다란 자양분을 취해 찬란한 문화를 일구었던 한국에서 다시 산스끄리뜨어가 연구되고 그것을 쟁기 삼아 또 다른 복전(福田)이 일궈질 수 있다면 산스끄리뜨 문법가로서 그만큼 기쁜 소식이 없을 것이다.

Pra.Sham. JOSHI.

Retired Professor & S·Grammarians

차례

- 서 문 -
- 차례 -
- 일러두기 -

제1장 모음과 자음 1

- (1) '산스크리트' 개요 · 1
 - 1) 산스크리트 前史
 - 2) 산스크리트 언어적 의미
 - 3) 산스크리트 분류
 - 4) 산스크리트 문자
- (2) 모음과 자음의 철자 · 4
 - (가) 데와나가리
 - (나) 모음과 자음의 철자
- (3) 모음과 자음 및 기타부호의 표기와 발음 · 6
 - (가) 모음과 자음의 표기
 - (나) 모음과 자음의 발음
 - (다) 기타부호의 표기와 발음
- (4) 모음의 계차 · 11
- (5) 모음과 자음의 발음에 대한 분류 · 12

제2장 연성법(Sandhi)

- (1) 연성법 개요 · 15
- (2) 연성법 유형 · 15

1. 외연성 16

- (1) 모음연성 · 16
 - (가) 모음연성의 종류 · 16
 - 1) 모음제1연성 : 안·산디
 - 2) 모음제2연성 : 어여와야와·산디
 - 3) 모음제3연성 : 구나·산디
 - 4) 모음제4연성 : 브릿디·산디
 - 5) 모음제5연성 : 빠라루빠·산디
 - 6) 모음제6연성 : 사와르나디르가·산디
 - 7) 모음제7연성 : 뿌르와루빠·산디
 - (나) 모음연성의 예외 · 18
 - 1) 뿌라끄리띠바와·산디
 - 2) 스와디·산디
- (2) 자음연성 · 19
 - 1) 자음제1연성 : 엠아누스·산디
 - 2) 자음제2연성 : 자식뜨와·산디
 - 3) 자음제3연성 : 식जू뜨와·산디
 - 4) 자음제4연성 : 식दू뜨와·산디
 - 5) 자음제5연성 : 짜르뜨와·산디
 - 6) 자음제6연성 : 와이아누·산디
 - 7) 자음제7연성 : 와이자짜·산디
 - 8) 자음제8연성 : 따와빠라·산디
 - 9) 자음제9연성 : 나드위뜨·산디
 - 10) 자음제10연성 : 나아누위·산디
 - 11) 자음제11연성 : 샤와이차·산디
 - 12) 자음제12연성 : 하자스뜨·산디
 - 13) 자음제13연성 : 짜가마·산디
 - 14) 자음제14연성 : 라디르가·산디
 - 15) 기타 자음 외연성

- (3) 위사르가 연성 · 26
 - 1) 위사르가 모음연성
 - 2) 위사르가 연자음연성
 - 3) 위사르가 경자음연성
 - 4) 위사르가 연성의 예외

2. 내연성 28

- (1) 모음 내연성 · 28
 - 1) 이왕우왕·산디
- (2) 자음 내연성 · 29
 - 1) 자음제1내연성 : 쫘호꾸후·산디
 - 2) 자음제2내연성 : 나나·산디
 - 3) 자음제3내연성 : 빠라사와르나·산디
 - 4) 자음제4내연성 : 꾸뜨와·산디
 - 5) 기타 자음 내연성

제3장 명사와 형용사

1. 명사 33

가. 명사 개괄

- (1) 명사의 성 · 33
- (2) 명사의 수 · 33
- (3) 명사의 격 · 34
 - 1) 격의 유형
 - 2) 격의 명칭 및 격별 의미

나. 명사의 격변화

- (1) 명사의 격어미 · 36
- (2) 모음어간 명사의 격변화 · 38
 - 1) 제1군 : '-a' & '-ā'
 - 2) 제2군 : '-i' & '-ī'
 - 3) 제3군 : '-u' & '-ū'
 - 4) 제4군 : '-r'
- (3) 자음어간 명사의 격변화 · 45
 - (가) 규칙격변화명사 · 45
 - 1) 제1군 : '-c', '-j', '-ś', '-ṣ' - A형
 - 2) 제1군 : '-c', '-j', '-ś', '-ṣ' - B형
 - 3) 제2군 : '-t(-mat,-yat,-vat)', '-th', '-d', '-dh', '-p', '-bh'
 - 4) 제3군 : '-an'
 - 5) 제4군 : '-in'
 - 6) 제5군 : '-s'
 - 7) 제6군 : '-vas'('i-ivas,-uvas,-ūvas')
 - 8) 제7군 : '-yas'('i-yas')
 - 9) 제8군 : '-is', '-us'

다. 명사 기타내용

- (1) 특별한 성격을 지니는 명사군 · 60
 - 1) 불규칙하게 활용되는 12개의 명사
 - 2) 복합어에서 어미가 변하는 5개의 명사

2. 형용사 61

- (1)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 61
- (2) 형용사 격변화 · 62
- (3) 형용사 기타내용 · 63

제4장 대명사 65

- 가. 대명사 개괄
 - (1) 대명사의 종류 · 65
 - (2) 대명사의 공통내용 · 67
 - (3) 대명사로부터 형성된 부사들 · 68
- 나. 대명사의 격변화
 - (1) 인칭대명사의 격변화 · 71
 - (2) 지시대명사의 격변화 · 72
 - (3) 관계대명사의 격변화 · 75
 - (4) 의문대명사의 격변화 · 76
 - (5) 대명사적 형용사의 격변화 · 77

제5장 동사

1. 동사의 개요 83

- (가) 동사기본형 구성방식 · 84
- (나) 동사의 數 · 84
- (다) 동사의 人稱 · 84
- (라) 동사의 態 · 84
- (마) 동사의 時制와 法 · 86
- (바) 동사의 기본도표 · 89

2. 동사의 활용 90

가. 동사의 제1차 활용

- (1) 현재어간으로 형성되는 동사의 활용 · 90
 - (가) 현재어간의 제1종 활용에 사용되는 인칭어미 · 90
 - (나) 현재어간의 제1종 활용 - 제1.4.6.10류 동사의 활용 · 91
 - 1) 제1류 동사의 활용 · 91
 - 2) 제4류 동사의 활용 · 93
 - 3) 제6류 동사의 활용 · 95
 - 4) 제10류 동사의 활용 · 97
 - (다) 현재어간의 제2종 활용에 사용되는 인칭어미 · 99
 - (라) 현재어간의 제2종 활용 - 제2.3.5.7.8.9류 동사의 활용 · 99
 - 1) 제2류 동사의 활용 · 100
 - 2) 제3류 동사의 활용 · 103
 - 3) 제5류 동사의 활용 · 103
 - 4) 제7류 동사의 활용 · 105
 - 5) 제8류 동사의 활용 · 107
 - 6) 제9류 동사의 활용 · 109
 - (마) 현재어간을 사용하는 시제와 법별 추가내용 · 110
 - (바) 현재어간을 사용하는 시제와 법별 용법 · 111
- (2) 완료어간으로 형성되는 동사의 활용 · 113
 - (가) 중복완료 · 113
 - 1) 중복일반완료 · 113
 - 2) 중복생략완료 · 114
 - 3) 특이한 어근의 형태에 따른 중복완료어간 형성의 예 · 115
 - (나) 복합완료 · 118
 - 1) 복합완료형을 만드는 방법 · 118
 - 2) 복합완료형이 적용되는 동사군 · 118
 - 3) 복합완료 변환 예시 · 119
- (3) 아오리스트어간으로 형성되는 동사의 활용 · 120
 - (가) 아오리스트시제 공통 · 120
 - (나) 아오리스트 어간을 형성하는 7가지 방법 · 120
 - 1) 어근 아오리스트 · 120
 - 2) 'a' 아오리스트 · 121

3) 중복 아오리스트 · 123	4) 's' 아오리스트 · 125
5) 'iṣ' 아오리스트 · 126	6) 'siṣ' 아오리스트 · 128
7) 'sa' 아오리스트 · 129	
(다) 수동 아오리스트 · 130	
(라) 기원법 · 131	
(4) 미래어간으로 형성되는 동사의 활용 · 133	
(가) 복합미래시제 · 133	
(나) 단순미래시제 · 134	
(다) 조 건 법 · 135	
(라) 미래어간 변환 예시 · 136	
(5) 기타 참고사항 · 138	
(가) 변화어근군(ārdhadhātuka) 구간에서 예외적인 변화를 갖는 동사들 · 138	
(나) 변화어근군(ārdhadhātuka) 구간에서 일어나는 기타 현상들 · 139	
나. 동사의 제2차 활용 · 141	
(1) 수동활용(Passive) · 141	
(2) 사역활용(Causative) · 144	
(3) 의욕활용(Desiderative) · 148	
(4) 반복활용(Frequentative) · 151	
(5) 명사기원활용(Denominative) · 153	
(6) 쓰위동사(cvi verb) · 155	
다. 동사의 태(態) 전환 · 156	
3. 준동사 159	
가. 분사	
(1) 현재분사 · 159	(2) 과거수동분사 · 163
(3) 과거능동분사 · 166	(4) 가능수동분사 · 167
(5) 미래분사 · 171	(6) 완료분사 · 172
(7) 절대분사 · 173	
나. 부정사 · 177	
4. 특별한 성격을 지닌 동사군 178	
(가) 쌍뽀라사라나(samprasāraṇa) · 178	
(나) 접두사(upasarga) 'ud'이 첨부되면 's'가 생략되는 2개 동사 · 179	
(다) 2개의 목적어(직·간접)를 가지는 16개 동사 · 179	
(라) 1형식이며 -a 앞에 -āy를 접사로 추가하고 어간은 구나변화하는 5개 동사 · 179	
(마) 동사형성시 어근 뒤에 'i'가 추가되는 5개 동사 · 180	
(바) 4류 동사 가운데 어근의 모음이 브릿디음을 취하는 8개 동사 · 180	
(사) 1류 동사 가운데 pres. impf. imp. pot에서 불규칙 현재어간을 형성하는 동사 · 180	
(아) '잇아가마(iḍāgama)'와 '셋(ṣeṭ)'·'아닛(aniṭ)'·'벧(veṭ)' 동사군 · 181	
제6장 수사 185	
(1) 수사 종합표 · 185	
(2) 수사의 수와 성 및 격 · 190	
(3) 수 읽기 · 192	
(4) 수를 나타내는 부사 · 193	

제7장 부사와 조사 - 불변화사

1. 부사(Adverb)	195
(1) 격변화에 의해 형성된 부사	· 195
(가) 명사나 형용사에서 전용된 것들	· 195
(나) 대명사에서 전용된 것들	· 197
(2) 특정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부사	· 197
(3) 전치사적 부사	· 200
(4) 강조부사	· 202
2. 조사(affix)	203
가. 전치사	
(1) 동사전치사(Upasarga)	· 203
(2) 명사전치사(Karmapravacanīya)	· 210
(3) 독립전치사(Nipāta)	· 212
나. 접미사	
(1) 동사접미사(Kṛt pratyaya)	· 213
(2) 명사접미사(Taddhita pratyaya)	· 218
(3) 여성형성접미사(Strī pratyaya)	· 226
다. 기타조사	
(1) 접속사	· 230
(2) 감탄사	· 232
3. 불변화사	234
(1) 불변화사의 정의 및 분류	· 234
(2) 빠니니 불변화사	· 235
1) 'svar'군집(svarādi-class)	· 235
2) 니빠따(nipāta)	가) 'ca'군집(cādi-class) I · 243
	나) 'ca'군집(cādi-class) II · 244
	다) 'pra'군집(prādi-class) · 245
(3) 새로 추가된 불변화사 및 조성형태	· 246
(4) 참고내용	· 247

제8장 복합어

1. 복합어 개요	249
(1) 복합어 비교	· 249
(2) 복합어 비교예문	· 251
2. 기본복합어	252
(1) 전방前方복합어(Avyayībhāva)	· 252
(2) 후방後方복합어(Tatpuruṣa)	· 253
(가) 후방복합어 개요	
(나) 격별 후방복합어	
1) 제2후방복합어	· 253
2) 제3후방복합어	· 254

3) 제4후방복합어 · 255	4) 제5후방복합어 · 256
5) 제6후방복합어 · 256	6) 제7후방복합어 · 258
(나) 기타 후방복합어	
1) 변형후방복합어 · 258	2) 부정후방복합어 · 260
3) 전치후방복합어 · 260	4) 쓰위후방복합어 · 261
(라) 열외후방복합어 · 261	
(마) 형용사로 사용되는 후방복합어와 소유복합어의 차이 · 262	
(3) 동격후방同格後方복합어(Karmadhāraya Tatpuruṣa) · 263	
(4) 수사후방數詞後方복합어(Dvigu Tatpuruṣa) · 265	
(5) 쌍방雙方복합어(Dvandva) · 266	
(가) 쌍방복합어 개요	
(나) 쌍방복합어 종류	
1) 상호쌍방복합어 · 267	2) 군집쌍방복합어 · 267
3) 생략쌍방복합어 · 268	
(6) 소유所有복합어(Bahuvrīhi) · 208	
(가) 소유복합어 개요	
(나) 소유복합어 유형	
(다) 소유복합어 종류	
1) 부정소유복합어 · 270	2) 접두소유복합어 · 270
3) 동반소유복합어 · 271	4) 수사소유복합어 · 271
5) 방향소유복합어 · 271	6) 종락소유복합어 · 272
7) 포함소유복합어와 배제소유복합어 · 272	
3. 공통복합어 및 기타복합어 273	
(1) 부정否定복합어(Naṅ samāsa) · 273	
(2) 미탈락未脫落복합어(Aluk samāsa) · 274	
(3) 의존依存복합어(Sāpekṣa samāsa) · 275	
(4) 필요必要복합어(Nitya samāsa) · 275	
(5) 불규칙한 후방복합어 형성하는 단어들(samāsānta) · 276	

제9장 문장의 구성

1. 문장의 어순 279
2. 문장의 일치 280
3. 명사의 격별 용법 282
(1) 주어격(主語格) - kartṛ(nominative[nom.]) · 282
(2) 목적격(目的格) - karman(accusative[acc.]) · 282
(3) 도구격(道具格) - karaṇa(instrumentative[ins.]) · 284
(4) 시여격(施與格) - sampradāna(dative[dat.]) · 285
(5) 분리격(分離格) - apādāna(ablative[abl.]) · 287
(6) 소유격(所有格) - sambandhasāmānya(genitive[gen.]) · 290
(7) 처소격(處所格) - adhikaraṇa(locative[loc.]) · 291
(8) 절대구(絶對句) - 처소격과 소유격의 절대구 · 292

제 1 장 모음과 자음

(1) '산스크리트' 개요

1) 산스크리트 前史

인도에는 다양한 언어가 현존하고 있다. 지난 1931년 실시된 조사에서 225종의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그 후 1960년대에 재차 실시된 언어조사에서는 세세한 부족언어까지 포함된 총 723종의 언어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인도의 언어는 세 語族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가 인도·아리안(Indo-Āryan)계의 언어들이고, 두 번째가 드라비디안(Dravidian)계의 언어들이며, 세 번째가 문다(Muṇḍā)계의 언어들이다. '산스크리트'는 인도·아리안계의 언어에 속한다.

인도·아리안語는 인도·유럽어(Indo-European)語의 한 갈래이다. 현재 유럽지역과 아랍지역 및 인도와 북미의 언어권을 통칭하는 인도·유럽어는 그 언어적인 공통원형이 제시될 수 있는 고대의 일정한 시기가 상정될 수 있을 만큼 상호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후 대이동을 통해 언어의 통일성이 해체되면서 제각기 새로운 언어집단을 형성하며 다양한 語群으로 변천하게 된다. 그 언어집단은 알바니아(Albanian), 아르메니아(Armenian), 발틱(Baltic), 켈틱(Celtic), 게르만(Germanic), 그릭(Greek), 히타이트(Hittite), 인도·이라니안(Indo-Iranian), 라틴(Latin), 토크리안(Tokharian) 그리고 슬라보닉(Slavonic)의 11개 語群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인도·이라니안語派는 기원전 2천년경 코카서스지방을 출발하여 소아시아를 지나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거친 뒤 이란고원의 서북지방에 동서로 나뉘어 정착하였다. 고원의 서쪽에 머물던 부족은 지금의 이란지역으로 들어가 고대-페르시아어(Old Persian)와 아베스타어(Avestic)를 형성하였다. 한편 동쪽에 머물던 부족은 힌두쿠스산맥을 넘어 인도의 서북부인 인더스강 상류로 들어가 지금의 펀잡 지방에 정착하며 인도最古의 문헌인 <리그베다(ṛgveda)>를 완성하였으니,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16세기~12세기경이며 <리그베다>에 사용된 언어를 일컬어 '산스크리트(saṁskṛt)'라 한다.

2) '산스크리트' 언어적 의미

정확히는 '쌍스크리트(saṁskṛt)'라 발음되는 '산스크리트'는 '함께'라는 의미의 불변화사 'sam'과 '행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kr'의 합성어인 'sam-kṛta'에 接詞 's'가 삽입되어 형성된 것이다. 단어 'saṁskṛta'가 단순한 조합이나 결합을 의미하는 반면에 접사가 부가된 'saṁskṛta'는 완벽한 조합이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므로, 언어의 명칭으로서 '쌍스크리트'는 '다듬어진 완벽한 언어'를 뜻하는데, 그 언어가 최초로 사용된 <베다>가 절대존재 브라흐만의 음성을 온전히 옮겨담은 것으로 여기는 까닭에 종교적 의미가 부가되어 '완벽한 절대자의 음성을 옮겨담은 완벽한 언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산스크리트는 베다를 기록한 베딕-산스크리트(Vedic-Saṁskṛt)와, 기원전 5세기경에 빠니니(Pāṇini)에 의해 문법이 집대성된 이후의 것인 고전-산스크리트(Classical-Saṁskṛt)로 크게 나뉜다. 일반적으로 '베딕'이나 '고전'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산스크리트'라 일컬을 때는 곧 고전-산스크리트를 지칭한다.

3) 산스크리트 분류

가) 베딕-산스크리트(Vedic-Saṁskṛt)

인도·유로피안어의 고대 분류인 11개 語群 가운데 하나인 인도·이라니안어의 분파로서 인도·아리안어, 그것의 중심어인 '산스크리트'가 지니는 중요성은 모든 인도·유로피안어 가운데 비록 文章語이긴 하지만 초기의 모습을 거의 유지한 채 지금까지 완벽히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 까닭에 인도·유로피안어群의 언어적인 원시적 공통원형이 이 '산스크리트'를 통해 유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헌으로 남겨진 산스크리트어 가운데 최초의 것은 <리그베다>이다. 흔히 넷으로 나뉘지는 베다는 <리그베다>가 신에 대한 찬양의 계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마베다>는 리그베다 찬양의 계승에 음률을 가한 것이며 <야주르베다>는 제례의 형식을 다루고 있으며 <아타르와베다>는 주술적인 형식을 담고 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本集 또는 상히따(Saṁhitā)라고 일컫는데, 이 본집을 기반으로 하여 散文으로 만트라(mantra)의 용법과 의의를 설명하며 祭式的 의미와 기원에 관한 전설을 삽입한 祭儀書인 브라흐마나(Brahmaṇa), 수행을 위해 머무는 삼림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수되어야 할 비밀스런 가르침인 森林書 아란야까(Āraṇyaka), 宇宙萬像의 근본을 一元的인 것으로 규정하며 베다전통의 내용들에 철학적인 사고를 부여한 奧義書 우빠니샤드(Upaniṣad) 등으로 종교·철학적 발전과 함께 산스크리트의 언어적인 발전이 거듭되었으니,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16세기로부터 기원후 6세기에 이른다.

이렇게 <리그베다>로부터 시작된 운문체의 산스크리트 문장은 그 이후 산문으로 주석이 첨가되고 설화 등이 추가되며 <갈빠-쑤뜨라(Kalpa-sūtra)> 등의 聖傳文學에 이르러서는 거의 고전-산스크리트의 형태로 정착하게 되는데, 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5세기경 문법가 '빠니니'에 의해 문법이 집대성되면서 이미 고전-산스크리트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니, 기원전 8세기경 이후 수 세기에 걸쳐 저작된 우빠니샤드의 주된 語形은 오히려 고전-산스크리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 고전-산스크리트(Classical-Saṁskṛt)

기원전 5세기경 빠니니에 의해 집대성된 산스크리트 문법서 <아식따드야이(aṣṭādhyāyī)>는 그 후 기원전 4세기경 까뜨야야나(Kātyāyana)에 의해 증보·수정되었고, 다시 150년 정도 지난 기원전 2세기경 빠탄잘리(Patañjali)에 의해 주석되며 확립되었다. 그 이후 모든 인도의 학자와 문인들은 단지 그렇게 형성된 문법체계에 충실했을 뿐이었으니, 거의 2천년을 내려오며 그 기본적인 체계는 모든 산스크리트어로 된 저작물에 있어서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

생활언어로서의 산스크리트는 빠니니의 문법서가 성립된 시기를 전후하여 이미 생명을 다하고 그 후로 줄곧 文章語로 사용되었다. 그렇다고 口語로서의 사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으니, 빠니니 문법서의 내용 가운데에도 회화체로서의 규칙을 규정한 내용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일부 국한된 계층의 교양어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산스크리트의 주된 영향력은 오히려 口語로서는 죽은 언어가 되어버린 이후 빠니니의 문법에 의해 확정된 형틀에 맞춰 저작된 수많은 문헌들에 의해 원시적 형태가 보존된 채 보다 장구한 생명력을 갖춘 文章語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까닭에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전-산스크리트의 기초가 확립된 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진 인도의 양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산스크리트가 브라만계급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민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으며, 2세기경의 불교시인 아식와고샤(Āśvaghoṣa, 馬鳴)에 의해 부처님의 일대기 <붓다짜리따(Buddhacarita)>가 저술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인들에 의해 전형적인 고전-산스크리트 문학작품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6세기 이후에는 이미 인도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뒤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은 까닭은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문법적 체계를 확립한 채 文章語로서 일찍 정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 산스크리트 문법

4) 산스크리트 문자 - 데와나가리(devanāgarī)

산스크리트를 기록하는 문자로는 데와나가리(devanāgarī)가 사용된다.

산스크리트는 브라흐만[梵天]이 창제한 언어라는 의미에서 한문 번역어로 '梵語'라 일컫는데, 梵語를 기록하는 문자라는 의미에서 통칭되는 '梵字'는 狹義로 11세기 말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데와나가리 문자만을 지칭하며, 廣義로는 고대 브라흐미 문자에서 분화 발전된 인도의 모든 文字群을 가리킨다.

가) 브라흐미(brāhmī) 문자

梵字는 현재 유럽에서 통용되는 문자의 원형인 페니키아(Phoenicia)문자와 같이 셈족(Semitik)에 속한다고 보는 베버(A. Wever)의 학설이 학계의 정설이다. 기원전 8세기경 인도 상인들이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지방에 살던 셈족인 아람인(Aramaic)들과 접촉해 발생한 22개의 字母가 인도에 전래되었고, 브라만들이 이를 보완하여 기원전 5세기경 47자 또는 48자로 완성한 것이 梵字의 시초이다.

원래 셈문자 가운데 인도로 전래된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보는데, 첫 번째가 카로스티(kharoṣṭhī)문자로서 인도 서북지방에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승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다른 하나가 브라흐미(brāhmī)문자로서 데와나가리 문자를 포함하여 후대의 모든 인도글자의 원천이 된 글자이다.

브라흐미 문자가 사용된 最古의 자료로는 아쇼카왕 석주의 칙령문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자의 서법은 원래 오른쪽 방향의 가로쓰기였으나 점차 왼쪽 방향의 가로쓰기로 바뀌었으며, 서체도 시대와 지방에 따라 점차 변하여 기원후 1세기경에는 남방문자와 북방문자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 북방계의 대표적인 문자로는 기원후 4-5세기경에 굽타(supta)문자, 6세기경에 실담(siddham)문자, 7세기에는 중인도 지역의 나가리(nāgarī)문자, 8세기에는 샤라다(śaradā)문자 등 여러 문자들이 차례로 발생하였다. 특히 8세기 중엽에 특징적 형태를 갖추었다가 11세기 말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데와나가리(devanāgarī)문자는 가장 널리 보급된 범자체로서 산스크리트·빠알리어는 물론 현대 힌두어의 표기에도 쓰이고 있다.

나) 데와나가리(devanāgarī) 문자

데와나가리는 자음 33자와 모음 13자로 구성되어 있다. 神을 의미하는 'deva'와 都市的인 것을 의미하는 'nāgara'의 여성형 'nāgarī'의 합성어인 'devanāgarī'는 한문으로 '梵字'라 일컫는데, 梵字群 가운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문자이기도 하거니와 'deva'의 神이 특별히 梵天을 가리키기도 하는 까닭에 사용된 이름이다. 그 이름은 '신(deva)의 도시(nāgarī)에서 사용되는 문자'라는 의미로도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기존의 나가리(nāgarī)문자와 연관되어 보다 발전되었거나 더 낡은 문자라는 의미로 어두에 'deva'가 첨부되어 형성된 명칭으로 여겨진다.

데와나가리는 정교한 음성학적 구조에 의해 그 위치와 배열이 정해져 있다. 모음은 단모음 다섯과 장모음 넷 및 이중모음 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음은 가로 행으로 후음, 구개음, 반설음, 치음, 순음에 각 5개씩이 놓여 있고 반모음 넷과 치찰음 셋 및 아누스와라(anusvāra)와 위사르가(visarga)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음은 다시 세로 행으로 무성무기음, 무성대기음, 유성무기음, 유성대기음, 비음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2) 모음과 자음의 철자

모음(母音)		단모음(單母音) (single vowel)		복모음(複母音) (diphthong)
		단음(短音) hrasva(short vowel)	장음(長音) dirgha(long vowel)	
모음(母音) svara (vowel)	후음(喉音) kaṇṭhya(Gutturals)	अ a	आ ā	[ए ऐ]-[ओ औ] [e ai]-[o au] ¹⁾
	구개음(口蓋音) tālavya(Palatals)	इ i	ई ī	ए ऐ e ai
	반설음(半舌音) mūrdhanya(Linguals)	ऋ ṛ	ॠ ṝ	-
	치음(齒音) dantya(Dentals)	ऌ ḷ	-	-
	순음(脣音) oṣṭhya(Labials)	उ u	ऊ ū	ओ औ o au

자음(子音) ²⁾		폐쇄음(閉鎖音) sparśa(Stops)				+鼻音 anunāsika (Nasal)	비 고	
		無聲音[硬子音] kaṭohra vyañjana (Hard consonants)		有聲音[軟子音] mṛdu vyañjana (Soft consonants)		-		
		無氣音	帶氣音	無氣音	帶氣音			
자음(子音) vyañjana (Consonants)	후음(喉音) kaṇṭhya (Gutturals)	क् k	ख् kh	ग् g	घ् gh	ङ् ṅ	[ह]	
	구개음(口蓋音) tālavya (Palatals)	च् c	छ् ch	ज् j	झ् jh	ञ् ñ	[य] [श]	
	반설음(半舌音) mūrdhanya (Linguals)	ट् ṭ	ठ् ṭh	ड् ḍ	ढ् ḍh	ण् ṇ	[र] [ष]	
	치음(齒音) dantya (Dentals)	त् t	थ् th	द् ḍ	ध् dh	न् n	[ल्·व्] [स्]	
	순음(脣音) oṣṭhya (Labials)	प् p	फ् ph	ब् b	भ् bh	म् m	[व्]	
반모음(半母音) antaḥstha-varṇa(Semi-vowels)		-		य् y	र् r	ल् l	व् v	반모음은 無氣音
치찰음(齒擦音) ūṣma-varṇa(Sibilants)		श् ś	ष् ṣ	स् s	-		-	치찰음은 帶氣音
기식음(氣息音) mahāprāṇa(Aspirate)		-		.	ह् h		-	기식음은 帶氣音

1) 복모음 'e'와 'ai'는 후음이자 구개음이며, 'o'와 'au'는 후음이자 순음이며, 반모음 'v'는 치음이자 순음이다.

(가) 데와나가리(Devanāgarī)

산스크리트語를 기록하는 문자를 '데와나가리'라 일컫는다. '데와나가리'는 데와(deva. 神, 또는 '신성함'을 의미)와 나가리(nāgarī. 도시와 관련된 것, 또는 '나가리'문자)의 합성어이다.

(나) 모음과 자음의 철자

데와나가리 철자는 13개의 모음과 33개의 자음으로, 모두 46개의 자모로 구성되어 있다.

1) 모음과 자음

① 모음(svāra) : a, ā, i, ī, u, ū, r, ṛ, ḷ, e, ai, o, au.

- 단모음(hrasva) : a, i, u, r, ḷ.
- 장모음(dīrgha) : ā, ī, ū, ṛ, e, ai, o, au. ('ṛ'은 장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모음 가운데 'e, ai, o, au'는 특별히 복모음(saṃyukta dīrgha svāra)이라 불린다.

② 자음(vyañjana)

- 후음(kaṇṭhya) k, kh, g, gh, ṅ - 'k'계열자음(ka-varga)
- 구개음(tālavya) c, ch, j, jh, ñ - 'c'계열자음(ca-varga)
- 반설음(mūrdhanya) ṭ, ṭh, ḍ, ḍh, ṇ - 'ṭ'계열자음(ṭa-varga)
- 치음(dantya) t, th, d, dh, n - 't'계열자음(ta-varga)
- 순음(oṣṭhya) p, ph, b, bh, m - 'p'계열자음(pa-varga)
- 반모음(antaḥṣṭha-varṇa) y, v, r, l - y(구개), r(반설), l(치음), v(치음/순음)
- 치찰음(ūṣma-varṇa) ś, ṣ, s - ś(구개), ṣ(반설), s(치음)
- 기식음(mahāprāṇa) h - h(후음)

2) 자음의 또 다른 분류

① 무성음/경자음(kaṭohra vyañjana)과 유성음/연자음(mṛdu vyañjana)

자음이 발음될 때 성대가 진동하지 않는 것이 무성음이며, 성대가 진동하는 것이 유성음이다.

- 無聲音/硬子音 : k, kh, c, ch, ṭ, ṭh, t, th, p, ph, ś, ṣ, s.
무성음은 경자음이라고도 하며, 자음의 각 계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음 10개 및 치찰음 3개 등 총 13개의 자음이 이에 해당한다.
- 有聲音/軟子音 : g, gh, ṅ, j, jh, ñ, ḍ, ḍh, ṇ, d, dh, n, b, bh, m, y, v, r, l, h.
유성음은 연자음이라고도 하며, 자음의 각 계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자음 15개 및 반모음 4개와 기식음 1개 등 총 20개의 자음이 이에 해당한다.

② 무기음(alpaprāṇa)과 대기음(mahāprāṇa)

발음을 위해 숨을 쉴 필요가 없는 자음과 비음을 '무기음'이라 하고, 발음을 위해 숨을 쉴 필요가 있는 자음을 '대기음'이라 하며, 비음은 무기음·대기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無氣音(14개) : k, g, ṅ, c, j, ñ, ṭ, ḍ, ṇ, t, d, n, p, b, m, y, v, r, l.
- 帶氣音(14개) : kh, gh, ch, jh, ṭh, ḍh, th, dh, ph, bh, ś, ṣ, s, h.

2) 子音은 혀가 입안의 일정 위치에 부딪쳐 소리를 내는 sparśa(ña「y」의 25개 철자), 더운 기운을 동반하는 ūṣma(śa「l」의 4개 철자), 그리고 '중간에 남는 것'이란 의미의 antaḥṣṭha(ya「ṇ」의 4개 철자) 등 세 부류로 나뉜다.

(3) 모음과 자음 및 기타부호의 표기와 발음

deva	romn	bahara	한글	비 고	deva	romn	bahara	한글	비 고
< 모 음 >					't'계열자음(ṭa-varga)				
अ	a	a	아	America	ट	ṭ	T	뜨	stable <small>半舌音</small>
आ	ā	A	아	f <u>ath</u> er	ठ	ṭh	Th	트	table <small>半舌音</small>
इ	i	i	이	heat	ड	ḍ	D	드	dove <small>半舌音</small>
ई	ī	I	이	beet	ढ	ḍh	Dh	드	redhead <small>半舌音</small>
ऋ	ṛ	Ru	릭	or r <u>iv</u> er	ण	n	N	느	gentle <small>半舌音</small>
ॠ	ṝ	RU	릭	or r <u>ee</u> d	't'계열자음(ṭa-varga)				
लृ	l̥	lRu	르	설치음 르	त	t	t	뜨	stable
उ	u	u	우	s <u>ui</u> t	थ	th	th	트	table
ऊ	ū	U	우	p <u>oo</u> l	द	d	d	드	dynamic
ए	e	e	에	g <u>at</u> e	ध	dh	dh	드	redhead
ऐ	ai	ai	아이	a <u>is</u> le	न	n	n	느	gentle
ओ	o	o	오	p <u>o</u> le	'p'계열자음(pa-varga)				
औ	au	au	아우	l <u>ou</u> d	प	p	p	प्	spin
기타 모음					फ	ph	ph	프	shepherd
लृ	l̥	lRU	르	설치음 르	ब	b	b	브	beautiful
एँ	*	~e	-		भ	bh	bh	브	clubhouse
ऐँ	*	E	-		म	m	m	므	mother
औँ	*	~o	-		반모음(antaṣṭha-varṇa)				
ओँ	*	O	-		य	y	y	여	yes
< 자 음 >					र	r	r	러	red
'k'계열자음(ka-varga)					ल	l	l	러	law
क	k	k	ㄱ	sk <u>at</u> e	व	v	v	워	victory or wine
ख	kh	kh	ㅋ	bun <u>kh</u> ouse	치찰음(ūṣma-varṇa)				
ग	g	g	ㄱ	g <u>iv</u> e	श	ś	sh	시	shine
घ	gh	gh	ㄱ	log <u>h</u> ouse	ष	ṣ	Sh	시	efficient <small>半舌音</small>
ङ	ṅ	~g	ㅇ	s <u>ing</u>	स्	s	s	스	sweet
'c'계열자음(ca-varga)					기식음(mahāprāṇa)				
च	c	c	ㅈ	cello	ह	h	h	호	high
छ	ch	Ch	ㅈ	ch <u>ar</u> m	< 기타 부호 >				
ज	j	j	ㅈ	ju <u>s</u> t	८	m̐	~M	*	[움]
झ	jh	jh	ㅈ		•	m̐	M	*	아누스와라(anusvāra)
ञ	ñ	~j	ㄴ	c <u>an</u> yon	:	ḥ	H	*	위사르가(visarga)
					ऽ	'	&	*	아와그라하(avagraha)

(가) 모음과 자음의 표기

1) 기본 표기법

① 데와나가리(Devanāgarī)

산스크리트를 표기하는 기본문자를 '데와나가리'라 일컫는다. 기원은 페니키아(Phoenicia) 문자에 두고 있는데, 기원전 8세기경 인도로 들어온 뒤에 다시 많은 개량을 거쳐 11세기 말에 이르러 지금의 문자모습이 되었다.

② 로만 표기법(Romanize)

고전-산스크리트가 형성된 같은 시기에 당시의 민중속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던 언어로서 방언의 일종인 빠라크르티(Prākṛti)語群이 형성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빠알리(Pāli)어 등을 들 수 있다. 6세기경 산스크리트의 위치가 공고해짐에 따라 빠라크르티語群에 속하는 많은 언어들은 일부 지방어로 정착하거나 일부는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빠알리어는 인도대륙에서 사라졌던 운명이었음에도 남방불교경전의 기록어였던 까닭에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전승되었다. 그러다 근대에 남방불교경전이 서방에 소개되어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국의 P.T.S.(Pāli Text Society) 등에 의해 로만문자로 代替記錄되며 로만표기법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산스크리트 또한 이에 준하여 로만 표기법이 정립되었다.

③ 바하라(Bahara) 표기법

데와나가리의 컴퓨터입력 프로그램 가운데 널리 사용되는 '바하라(Bahara)'의 입력 표기법이다.

④ 한글 표기법

한글표기는 '奉先寺산스크리트編輯室'에서 발표된 '산스크리트 한글표기(案)'에 의한다. ㉞ 부록.

2) 철자 표기법

가) 모음 : 단어의 첫머리에 쓰일 때

① 'a' & 'ā'

• aśva	ātman	• अश्व	आत्मन्
--------	-------	--------	--------

② 'i' & 'ī'

• indra	īśvara	• इन्द्र	ईश्वर
---------	--------	----------	-------

③ 'ṛ' & 'ī'

• ṛtu	ṛte	• ऋतु	ऋते
-------	-----	-------	-----

④ 'i'

• ḷvarṇa		• लृवर्ण	
----------	--	----------	--

⑤ 'u' & 'ū'

• uṣā	ūvadhya	• उषा	ऊवध्य
-------	---------	-------	-------

⑥ 'e' & 'ai'

• eva	aikṣata	• एव	ऐक्षत
-------	---------	------	-------

⑦ 'o' & 'au'

• oṣati	audumbara	• ओषति	औदुम्बर
---------	-----------	--------	---------

나) 자음 : 단어의 끝에 쓰일 때

단어의 끝에서 모음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자음은 데와나가리 표기의 경우 빗금이 추가된다.

- | | | | |
|----------|---------|------------|---------|
| • yadvāk | vāc | • यद्वक् | वाच् |
| • tat | samidh | • तत् | समिध् |
| • rātrān | sukṛtam | • रात्रान् | सुकृतम् |

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 ① 자음과 모음 'a'의 결합 : 단독자음의 표시인 빗금이 생략된다.

• t+a=ta	m+a=ma	• त्+अ=त	म्+अ=म
----------	--------	----------	--------
- ② 자음과 모음 'ā'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뒤에 세로의 획이 추가된다.

• t+ā=tā	m+ā=mā	• त्+आ=ता	म्+आ=मा
----------	--------	-----------	---------
- ③ 자음과 모음 'i'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앞에 세로의 획이 추가된 뒤 연결된다.

• t+i=ti	m+i=mi	• त्+इ=ति	म्+इ=मि
----------	--------	-----------	---------
- ④ 자음과 모음 'ī'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뒤에 세로의 획이 추가된 뒤 연결된다.

• t+ī=tī	m+ī=mī	• त्+ई=ती	म्+ई=मी
----------	--------	-----------	---------
- ⑤ 자음과 모음 'r'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밑에 고리모양이 추가된다.

• t+r=tr	m+r=mr	• त्+ऋ=त्	म्+ऋ=म्
----------	--------	-----------	---------
- ⑥ 자음과 모음 'ṛ'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밑에 이중고리모양이 추가된다.

• t+ṛ=tṛ	m+ṛ=mṛ	• त्+ऌ=त्	म्+ऌ=म्
----------	--------	-----------	---------
- ⑦ 자음과 모음 'l'의 결합 : (일정한 단어에만 나타난다.)

• saṅkṛptyai	udūhlaṅ	• संक्ल्प्यै	उदूहळं
--------------	---------	--------------	--------
- ⑧ 자음과 모음 'u'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밑에 상향의 고리가 추가된다.

• t+u=tu	m+u=mu	• त्+उ=तु	म्+उ=मु
----------	--------	-----------	---------
- ⑨ 자음과 모음 'ū'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밑에 하향의 고리가 추가된다.

• t+ū=tū	m+ū=mū	• त्+ऊ=तू	म्+ऊ=मू
----------	--------	-----------	---------
- ⑩ 자음과 모음 'e'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위에 빗금이 추가된다.

• t+e=te	m+e=me	• त्+ए=ते	म्+ए=मे
----------	--------	-----------	---------
- ⑪ 자음과 모음 'ai'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위에 이중빗금이 추가된다.

• t+ai=tai	m+ai=mai	• त्+ऐ=तै	म्+ऐ=मै
------------	----------	-----------	---------
- ⑫ 자음과 모음 'o'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뒤의 획과 철자 위의 빗금이 추가된다.

• t+o=to	m+o=mo	• त्+ओ=तो	म्+ओ=मो
----------	--------	-----------	---------
- ⑬ 자음과 모음 'au'의 결합 : 빗금이 생략되고 철자 뒤의 획과 철자 위의 이중빗금이 추가된다.

• t+au=tau	m+au=mau	• त्+औ=तौ	म्+औ=मौ
------------	----------	-----------	---------

라) 자음과 자음의 결합

- ① 앞선 자음에 단독자음의 표시인 빗금이 사용되는 경우

• aṅ+ga=aṅga	d+ba=dba	• अङ्+ग=अङ्ग	द्+ब=द्ब
--------------	----------	--------------	----------

② 앞선 자음이 반절만 표시되는 경우

• k+ya=kya	g+na=gna	• क्+य=क्य	ग्+न=ग्न
• c+va=cva	ñ+ja=ñja	• च्+व=च्च	ज्+ज=ज्ज
• t+va=tva	th+na=thna	• त्+व=त्व	थ्+य=थ्य
• p+ya=pya	m+na=mna	• प्+य=प्य	म्+न=म्न
• v+ya=vya	l+va=lva	• व्+य=व्य	ल्+व=ल्व
• ś+na=śna	ṣ+ya=ṣya	• श्+न=शन	ष्+य=ष्य

③ 뒤따르는 자음이 앞선 자음의 밑으로 들어오는 경우

• d+dha=ddha	d+ya=dya	• द्+ध=द्ध	द्+य=द्य
• d+da=dda	d+bha=dbha	• द्+द=द्द	द्+भ=द्भ
• ṣ+ṭa=ṣṭa	ṣ+ṭha=ṣṭha	• ष्+ट=ष्ठ	ष्+ठ=ष्ठ

④ 하나의 자음이 다른 자음에 철자의 일부 또는 새로운 부호로 예측되는 경우

• t+ta=tta	n+na=nna	• त्+त=त्त	न्+न=न्न
• h+ma=hma	h+ya=hya	• ह्+म=ह्म	ह्+य=ह्य
• h+ṇa=hṇa	h+na=hna	• ह्+ण=ह्ण	ह्+न=ह्न
• h+la=hla	h+va=hva	• ह्+ल=ह्ल	ह्+व=ह्व

⑤ 두 자음이 결합하여 하나 또는 복합된 새로운 철자로 변하는 경우

• j+ñ=jñ	k+ṣa=kṣa	• ज्+ञ=ज्ञ	क्+ष=क्ष
• ś+ca=śca	ś+va=śva	• श्+च=श्च	श्+व=श्च

⑥ 'r'의 다양한 변화

• k+ra=kra	g+ra=gra	• क्र+र=क्र	ग्+र=ग्र
• t+ra=tra	d+ra=dra	• त्+र=त्र	द्+र=द्र
• p+ra=pra	b+ra=bra	• प्+र=प्र	ब्+र=ब्र
• bh+ra=bhra	m+ra=mra	• भ्+र=भ्र	म्+र=म्र
• ś+ra=śra	s+ra=sra	• श्+र=श्र	स्+र=स्र
• h+ra=hra		• ह्+र=ह्र	
• r+va=rva	pa+r+va=parva	• र्+व=र्व	प+र्+व=पर्व
• r+ya=rya	ka+r+ya=karya	• र्+य=र्य	क+र्+य=कर्य

⑦ 세 개의 자음이 겹치는 경우

• t+r+ya=trya	s+t+ra=stra	• त्+र्+य=त्र्य	स्+त्+र=स्त्र
• n+t+ya=ntyā		• न्+त्+य=न्त्य	

(나) 모음과 자음의 발음

산스끄리트의 발음과 한글표기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교종본찰 奉先寺소재 (假稱)'산스끄리트編輯室'에서 2012년 초 試案으로 내놓은 '산스끄리트 한글표기(案)'에 기준한다. 봉선사 산스끄리트 한글표기안은 '일반문장표기용'과 '진언·다라니표기용'의 둘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문장표기용의 내용에 준한 것이다. ㉞ 부록.

(4) 모음의 계사(Vowel gradation)

모음의 변화를 일컫는 '구나(guṇa)'와 '브릿디(vṛddhi)'는 어형의 변화와 파생어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고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산스크리트에는 동일한 어원을 지닌 語群이 존재한다.

- vid(2.Ṕ. to know) : veda(Ṣ. knowledge), vaidya(ā. relating to the Vedas)
- budh(1.Ṱ. to know) : bodhi(Ṣ. perfect wisdom), bauddha(ā. relating to Buddha)

동사어근 '√vid'의 경우 어근의 기초모음이 '구나'음으로 대체되고 어미에 명사를 형성하는 조사 가운데 하나인 '-a'가 첨부되면 새로운 명사로 형성되며, 또한 동사어근의 기초모음이 '브릿디'음으로 대체되고 어미에 형용사형성조사 가운데 하나인 '-ya'가 첨부되면 새로운 형용사로 형성된다.³⁾

- √vid > v+a+i+d > v+e+d + -a > veda(Ṣ.)
- √vid > v+a+i+d > v+a+e+d > v+ai+d+ -ya > vaidya(ā.)

기초모음	a / ā	i / ī	u / ū	ṛ(ṝ)	ḷ
구나(guṇa)	a / ā	e	o	ar	al
브릿디(vṛddhi)	ā	ai	au	ār	—

- ① 구나(guṇa)음은 기본모음에 'a'가 한 차례 첨부된 음의 변화와 동일하며, 브릿디(vṛddhi)음은 기본모음에 'a'가 두 차례 첨부된 음이나 구나음에 'a'가 한차례 첨부된 음의 변화와 동일하다.
- ② 'a'는 구나음에서 변화가 없으며, 'ā'는 구나음과 브릿디음에서 모두 변화가 없다.
- ③ 'ṛ'는 語形의 변화나 轉用에서 구나음 또는 브릿디음을 취하는 경우가 없다. 만약 기타의 경우에 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ṛ'과 동일한 구나음(ar)과 브릿디(ār)음을 취할 수 있다.
- ④ 'ḷ'는 고전산스크리트에 나타나지 않으며, 'ḷ'의 강변화음은 'al'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 ⑤ 'ṛ'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 뒤따르는 자음과의 충돌로 인한 발음의 편의를 위해 구나음의 'ar'와 브릿디음의 'ār'가 'ra' 및 'rā'로 대체되기도 한다.
 - √drś(1.Ṕ. to see, look at, observe) → drakṣyāmi(fut. I .sg.)

3) 동사어근을 기초로 한 명사와 형용사의 형성과 相互轉用은 단어의 유형별로 동일하지 않은 과정을 거친다.

(5) 모음과 자음의 발음에 대한 분류

1) Bāhyaprayatna(口腔部 發音作用)

가) 제1群

① spr̥ṣta(齒擦音)

- 입안에서 발성기관이 서로 부딪혀 형성되는 발음.
- 자음 k에서 m까지, 모두 25개.
- spr̥ṣta(p.p. touched, felt with the hand) < spr̥ś(6.Ṁ. to touch; to adhere to)

② iṣat-spr̥ṣta(半母音)

- 입안에서 발성기관이 서로 가볍게 부딪혀 형성되는 발음.
- 반모음(antastha) y, v, r, l 등 모두 4개.
- iṣat(Ṁ. slightly, to some extent, a little)

나) 제2群

① iṣat-vivṛta(齒擦音)

- 입안에서 발성기관이 조금만 열림으로써 서로 마찰을 일으켜 형성되는 발음.
- 치찰음(ūṣma) ś, ṣ, s 등 모두 3개.
- vivṛta(p.p. displayed, manifested, expressed; evident, clear, open; uncovered)

② vivṛta(母音)

- 입안에서 발성기관이 활짝 열림으로써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채 형성되는 발음.
- 모음 가운데 a를 제외한 모든 모음.

다) 群外

① samvṛta(短喉音)

- 모음 가운데 短音의 喉音인 a.
- samvṛta(p.p. covered, covered up; hidden, concealed) < samvṛ(1.5.9.Ṁ. to cover)

2) Ābhyantaraprayatna(咽喉部 調音作用)

가) 제1群

① A列 : vivāra

- 咽喉部가 활짝 열려서, 「숨결이 전혀 막힘이 없으므로,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
- vivāra(Ṁ. open or expanded state of the organs of speech, expansion of the throat in articulation) < vivṛta(p.p. displayed; open) < vivṛ(5.9.Ṁ. to open)
 - 咽喉部가 활짝 열려서[cause], 숨결이 전혀 막힘이 없으므로[middle effect],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final effect].

② B列 : samvāra

- 咽喉部가 살짝 열려서, 「숨결이 咽喉와 마찰되게 되므로, 큰 소리가 난다.